

기획 특집 일곱교회

- 에베소 교회
- 서머나 교회
- 버가모 교회
- 두아디라 교회
- 사데 교회
- 빌라델비아 교회
- 라오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2)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환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요한계시록 2:14~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
-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총회장
- (사)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모두 들은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결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 타협하는 등 적당주의 신앙을 따르며 이단 사상에 젖은 교회들을 향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브돌 강변에 사는 브올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에게 사신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 40년의 광야생활을 거치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태였지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발람이 하나님께 그 뜻을 묻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민 22:12)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발람은 왕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발락이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어 크게 존귀케 해 주겠다 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첫 시험을 통과한 것 같아 보였지만, 발람은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과 사심이 있으니 유혹하는 이들을 물리치지 않고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 뜻을 다시 여쭙어 보겠다고 타협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 행할지니라”(민 22:20)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미 알려 주셨는데도 다시 묻는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맡기신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 귀족들을 따라 나서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그의 길을 막으시며,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게 했지요. 그때 이방 여인들이 음란한 춤을 추는 현란한 제사 광경을 보자 그들은 그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고 말았습니다(민 25:1~2).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 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민 25:9).

이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교훈을 통해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진리를 떠나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주의 신앙에 대한 경계입니다. 발람이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의의 샷을 사랑해 결국 사망의 길로 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믿는 다 하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이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을 사랑해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딤후 6:10).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일을 어기거나 하나님 것인 십일조와 헌물을 도적질합니다(말 3:8). 또한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데도 물질과 명예를 탐하고 세상 권세와 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 한 번 정한 마음을 변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대중대중 신앙생활 한다거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달라진다 해도 변개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를 경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치 않는 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2.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행위를 좇아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차츰차츰 더 깊이 세상으로 빠지고 결국에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좇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그들의 주장은 “육체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은 성결하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으로서 얼마나 진리에 위배된 것인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고전 6:9~10; 살전 5:23).

날이 갈수록 적당주의 신앙이 만연되어 오늘날은 더더욱 니골라 당의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나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말씀을 자신에게 맞게 해석해 적당히 죄를 지어나가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국 니골라 당의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발람의 행위와 니골라 당의 행위는 적당주의 신앙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람의 행위는 간단히 말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면서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나 권세를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 (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안·청년·배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